

# “지방 규제 완화 공단 만들어야”

## 노 대통령, 안동서 2단계 균형발전보고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처럼 과밀한 도시도 있는데 상수도 문제가 아닌 한 녹지비율을 가지고 경북 북부에서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며 “산도 깎고 논도 필요하면 공단을 만들면 된다.”고 지방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기사 5면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에) 한 개의 기업공장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기업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52%)을 넘긴 만큼 장래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 “지금은 서울에서 안동 출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안동 출신

사람, 안동에 아버지를 둔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안 나온다.”며 “지금 국민의 가슴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통)는 지방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고,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이날 발표했다.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구상은 ‘기업 대책’과 ‘사람 대책’의 2개 부문에 14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